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윤 혁	영 문	YUN HYEOK
학과(전공)	기계설계공학과		학 번	20150823
파견 학기	2017-1학기		연락처	010-2356-3262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대학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일단은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올 때부터 교환학생 지원을 고려하고 있었다. 주변에 교환학생 다녀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하일브론에 다녀온 후에 후기를 들려주면서 독일 하일브론대학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계기는 전공공부로부터의 탈출이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에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우리 학교는 파견학교에서 F만 면하면 성적이전을 하면서 Pass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가서 놀면서 여유롭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교환학생에 합격한 후 서류준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절차는 쓰지 않겠다. 교류원과 파견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된다.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서류 작성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과제, 시험과 겹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니 잘 넘기길 바란다.

<기숙사, 독일계좌 개설, 보험에 대해서>

꼭 자취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어 할 것이다. 기숙사 신청은 파견교와 서류를 주고받는 절차에 포함되어 있다. 가능하면 파견교와 의사소통하는 메일은 평소에 쓰는 메일과 따로 하기를 추천한다. 나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naver를 쓰지만 파견교와 의사소통은 gmail로 하면서 메일 알람기능을 켜둬서 바로바로 학교에서 오는 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파견교에서 오는 연락 중 놓쳐서는 안 되는 연락이 있기 때문이다. 크게 3가지 용건의 메일이 중요한데, 기숙사 합격 메일 / 독일계좌 개설 / 보험가입이 그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은 가서 해도 되고, 가서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한국에서 먼저 보험사를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험 가입을 하고 가면 더 확실하고, 파견교에 가기 전 독일 내를 여행하다가 다치는 상황을 커버할 수 있다. 문제는 귀찮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가서 하고, 가서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독일계좌 개설은 개설 의사를 묻는 메일에 개설한다는 답장을 해줘야 한다. 독일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메일에서 미리 만들겠다고 하고 가면 거기서 미리 진행을 하다가 파견교에 도착할 쯤에 적절히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다. 안 해가도 가서 만들 수 있는데, 가서 일

이 귀찮아지고 시간도 걸린다.

가장 중요한 게 기숙사 합격 메일일일 것 같다. 기숙사 입사하는 인원은 가는 학기마다 다르다. 나는 내가 하일브론에 가기 직전 3학기 동안 하일브론에 다녀온 사람을 각각 1명 이상씩 알고 있는데, 어느 학기는 우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학생이 모두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학기는 최연장자와 최연소자만 들어가기도 한다. 학기마다 상황과 운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기숙사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불합격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혹시 합격한 학생들이 입사등록 안 해서 자리 날 수도 있지 않니.? 혹시 자리나면 꼭 연락줘.!" 식의 메일을 미리 적어놨다가, 불합격 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그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미리 집을 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독일학생을 연결시켜서 집을 구하도록 권할 것이다.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한 동안 답장이 없으면 먼저 다시 메일을 써서 기숙사 배정이 끝났냐고 묻기도 했다. 어찌어찌하여 출국 한 달 전쯤에 추가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불합격할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되는 학생들은 아예 일찍부터 구하던지, 적어도 1차 불합격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구하기를 추천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의 싼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숙사 안 되면 독일 가서 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고, 다행히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추가합격을 하면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기숙사에 대해서 길게 쓰는 것은, 기숙사에 사는지 안 사는지가 어떤 교환학생 생활을 할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서 길에 나 앉을 수는 없으니, 기숙사든 자취방이든 소신 있게 잘 구하길 바란다.

<비자발급에 대해서>

비자발급, 파견교 가서해도 아무런 문제없다. 미리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한국인은 유럽전역에서 무비자로 90일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안 하고 가서 여행 실컷하다가 학교에 가도 그 때 비자 신청하면 안 늦는다. 또 대부분 가서 하니, 같이 하면 될 듯하다.

<수강신청에 대해서>

파견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 명확하게 다 정하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먼저, 파견교와 서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강신청 같은 것을 하기는 할 것이다. 그거, 가서 얼마든지 다 바꿀 수 있다.

하일브론 수강신청 시스템 자체가 그냥 대뜸 수업 들어가서 '들어보고 싶다, 들을 만 할 것 같다' 하면 수업신청 하는 거다. 그렇게 듣다가도 못 하겠으면 시험신청을 안 하면 된다. (독일은 대부분 수업이 기말시험 한 번만 있다.) 하일브론의 수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신청이다. 수업을 들었어도 시험신청을 안 하면 이수 안 한 걸로 되고, 기록도 안 남는다. 거꾸로 수업 안 듣다가도 시험신청해서 시험만 잘 보면 이수되는 시스템이다. (물론 중간에 과제 등에는 패널티가 있겠지만, 적어도 몇몇 수업을 제외하고는 출석은 부르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다. 특히, 전공을 인정받으려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과 선배들이 그 과목에 대해 본교의 전공인정을 받은 선례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담당교수님과 미리 면담을 해서라도 미리미리 알아봐야 한다. 나는 먼저 다녀온 사람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인정받아지는지까지 대부분 알고 갔다. (교양이든 전공이든) 결론은, 알고가면 좋지만 모르고 가도 가서 친구들하고 맞춰서 해도 된다.

<항공권 구입>

당연히 항공권은 일찍 하면 할수록 싸다. 특히, 파견교에 가기 전 미리 여행을 하고 가려는 학생들은 그것까지 미리미리 다 해두길 바란다. 그리고 왕복으로 끊는 것을 권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왕복이 더 싸다. 나중에 혹시 귀국날짜를 바꾸고 싶으면, 추가비용 지불하고 조정도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왕복으로 끊는 것이 경제적이다.

<출국 전 짐 싸기>

네이버에 '독일 교환학생(또는 이민) 짐 싸기'라고 치면 이것저것 많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웹을 참고해서 싸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은 것들 몇 가지 적어보겠다.

(1) 손톱깎이세트 – 독일에서 사려면 꽤 비싸다. 크기도 작으니 챙겨 가면 이득이다.

(2) 여러 가지 의약품 – 독일에서는 처방전이 없으면 웬만한 약은 그냥 구매가 안 된다. 기본적인 약품들은 챙겨 가면 좋을 것 같다.

(3) 양말 – 정말 강조하고 싶다. 독일, 양말이 비싸다. 우리처럼 양말을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양말 없으면 사서라도 가는 걸 권한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건 아니지만, 예쁘지도 않은 양말을 그 돈 주고는 정말 사고 싶지가 않았다.

(4) 바리깡 – 이건 주로 남자한테 한하는 얘기다. 나는 사서 간 것은 아니고, 머리가 투블럭이라 원래부터 바리깡을 가지고 있었다. 계속 투블럭을 유지할 생각이었어서 들고 갔는데, 나 말고도 셋이나 더 들고 왔었다. (심지어 숱가위까지,,) 운이 아주 좋게도 깎새 출신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너무 머리를 잘 해서 독일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돈 주고 머리 자른 적이 없었다.

(5) 음식 – 이거는 굳이 챙기지 않았으면 해서 적는 것인데, 안 그래도 짐 많은데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오는 친구들이 있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 한독이라고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한국 라면부터 식재료까지 2,3일 내로 배송되니까, 꼭 필요하면 김 정도만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6) 옷 – 여름학기 기준으로 말하겠다. 먼저, 독일날씨가 변덕스러운 건 알고 있을 거다. (4월에도 눈이 왔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급변하는 날씨지만, 대체적으로 3,4월까지는 춥다. 겨울 아우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서 코트나 가벼운 항공점퍼 정도만 가져가도 될 것 같다. 5월은 봄 날씨지만, 밤 되고 바람 불면 추워서 아우터가 필요할 거 같다. 6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해 7,8월은 최고온도가 30도를 넘는다. 그래도 습하지 않아서 한국보단 훨씬 낫다. 비오고 바람불면 언제든지 추워질 수 있으니 여름옷에 걸칠 가벼운 옷 있으면 좋다. 결국 다 필요한데, 겨울옷을 조금만 챙겨가서 버티면, 곧 살만해진다.

(7) 공유기 – 이건 기숙사가 어디 걸리느냐에 따라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취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 집에 공유기가 있다. 나는 생각 없이 안 들고 갔다가 쓸 수 있는 기숙사에 걸려서 독일에서 샀다. 한국이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난다.

(8) 블루투스 스피커 – 이건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다. 작은 크기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가져갔는데, 신의 한수였다. 행복한 순간 음악을 더하는 거다. 수많은 홈파티에서, 때로는 여행지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

(9) 생필품 – 당장 쓸 것만 챙겨오면 된다. 거의 모든 생필품이 한국보다 독일에서 더 싸다. 대체적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물가가 싸다.

(10) 밥솥 – 냄비밥도 할 수 있지만 밥솥이 있으면 덜 귀찮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직전학기 학생들한테 사거나, 그냥 가서 아마존 같은 데서 사는 걸 추천한다. 독일제품을 쓰다가 한국 들고 갈 거라면 좋은 걸 사도 되지만, 그럴 게 아니라면 싼 제품 사서 쓰면 된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기후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는 짐 싸기 옷 부분에서 얘기를 했으니 조금만 보태겠다. 독일의 괴팍한 날씨에도 장점이 있다면, 날씨가 좋을 때 기분이 정말 좋다는 거다. 계속 우중충하다가 화창한 날일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정말 날씨가 사람 기분을 바꿀 수 있다. 또, 한국에서는 거의 실내에 박혀서 일만 하는 경우가 많

은데, 독일에서 교환학생 생활이 여유로워서 야외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다.

또 하나 놀랄만한 일은, 독일에는 에어컨이 없는 건물이 많다는 것이다. 있어도 안 트는 경우도 많다. 스타벅스 정도 가면 빵빵하게 틀어준다. 기본적으로 하일브론 대학교내와 기숙사에 에어컨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한 여름을 지낼 수 있는 건, 독일 날씨가 습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도는 높아도 습하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살만하고, 집도 건식이라 선풍기 없이 방 안에 있어도 천천히 움직이면 살만하다.

<파견교의 크기, 위치, 주변환경>

하일브론은 유럽판 금오공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하일브론도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자동차 산업으로 발전한 도시이고, 하일브론 대학도 한적한 교외같은 느낌이니 구미공단의 금오공대와 비교할 만하다. 크기와 위치, 주변환경 모두 그렇다. 하지만 당연히 유럽판 금오공대니까 금오공대와는 다르다. 할 게 없어서 심심하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는 이 한적하고 요양하기 좋았던 도시가 그립다. 식사 후 음악을 들으며 한적하게 걷기만 해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공간들이라 다 꼽고 싶지만, 하나만 꼽자면 학교 바로 근처에 Wertwiesen이라는 아주 큰 공원이 있다. 여름학기라면 날씨도 좋을 테니, 갈 수 있는 만큼 자주 가기를 권한다. 친구들끼리도, 가족들끼리도 돗자리 들고 많이들 찾는 공원이다. 아마 크기가 금오공대 전체 캠퍼스 정도만 한 것 같다. 아무튼 크다. 맥주와 케밥을 사들고 가면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유흥에 대해서는, 하일브론이 금오공대보다 나은 것 같다. 시청 근처가 번화가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술집들이 꽤 있고, 특히 클럽의 개수가 더 많은 것 같다. 번화가 근처에서도 학생들이 자주 가는 클럽이 3~4개는 된다. 클럽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클럽을 안 다니던 학생들도 외국 친구들과 어울려서 많이들 같이 가는 분위기니, 자주 갈 곳은 못 되지만 경험해보는 것을 권한다.

하일브론 대학은 캠퍼스가 둘이다. 하나는 Sontheim 캠퍼스이고 하나는 Europa 캠퍼스이다. 금오공대와 비교하자면, Sontheim 캠퍼스는 테크노관 같은 곳이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수업들이 Sontheim에 있고, 그러다보니 남자가 많고 비교적 칙칙한 분위기다. 반대로 Europa 캠퍼스는 시청 근처(번화가)에

위치하고 있고, 비즈니스 쪽 수업이 많다 보니 여학우들이 많고 더 밝고 활동적인 느낌이다. 집에서 멀리 나가기 귀찮다고 모든 강의를 Sontheim에서만 수강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Europa 수업도 같이 듣기를 권한다. 수업 때문이라도 더 돌아다니고, 번화가도 자주 들리게 되고, 또 더 많은 독일인들을 만날 수 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위에 <수강신청에 대해서> 파트에 독일의 기본적인 수강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과목별 소개를 하겠다. 먼저 대체적으로 하일브론은 엔지니어링 파트 수업들이 비즈니스 파트 수업들보다 평가에 있어서 엄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도 절대평가라 교수 기준에 못 미치면 F받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자동차공학 관련 수업들) 나는 초반에 자동차공학 관련 전공수업들과 영어공부를 같이 하려다가, 너무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과감히 공학 수업들을 모두 포기했다. 대신 비즈니스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서 영어공부에 더 집중했다.

(1) German as foreign language 1 (A1.1) (In Sontheim Campus) (6ects)

먼저 독일어, 필수 아니다.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된다. 독일어는 6ects다. 그만큼 수업시간도 길고 노력도 많이 들어간다. 학기 초 테스트를 쳐서 실력대로 분반한다.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A1.1으로 간다.(A1.1이 제일 기초반) 나의 경우에는 영어 외의 다른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경험삼아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수강했다. 수업 스타일은 교수님에 따라 다르다. 중간 중간에 퀴즈를 많이 보는 교수님도 계시고, 나의 경우처럼 세 번의 시험과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를 끝내는 교수님도 계신다. 독일어 수업은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들다. 교수님이 영어로 독일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 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바로바로 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문법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문법은 알아야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아는데, 독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독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략하고 회화수업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씩 가르치는 느낌이다. 많은 한국 친구들이 미리 독어 기초를 듣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따라간다. 난 미리 안 하고 가서 공부했다. 유튜브에 '후 레드군'이라는 채널이 있다. 여기 독어 수업 한국어 수업이라 이해하기 쉽고, 무료다. 많이들 유료강의 듣고 오는데, 독일 가기 전에 공부하려면 여기 강의 듣는 걸 추천한다. 참고로, A1.1 수업 듣는다고 절대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니, 경험삼아 들을 친구들만 듣기를 권한다.

(2) German as foreign language, e-Learning (A1.1+) (Online) (2ects)

독일어 e-Learning 2ects다. 원래는 독일어 수업이랑 병행해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듣고 온라인으로 시험도 치자는 취지의 수업인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 신청해놓고 수업은 안 듣고 시험만 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험이라, 독일인 친구 데리고 와서 도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 ocu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학점 채우기 용으로 추천한다.

(3) English for business studies 1 (for incoming students) (In Europaplatz) (2.5ects)

영어를 위한 영어수업이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수업을 시작하고, 교수님이 하는 일은 주로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이론적으로는 시제를 주로 다루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쓸 만한 영어에 대해서도 조금 배운다.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과 기말 시험이 있는데, 기말시험에서는 이론적으로 배운 부분들이 출제된다.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으나, 유일하게 출석체크를 했던 수업. (출석 성적 반영)

(4) Principles International Management (In Sontheim Campus) (5ects)

5ects짜리 수업이다. 학기 초반에 월~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하고 끝나는 수업이다. 우리학교에서 '경영학원론'으로 인정받은 선례가 있는 수업이다. 수업과 팀 활동을 병행하는 식의 수업이다. 일주일동안 준비한 팀 발표를 금요일에 하고, 최종 레포트를 제출한다. 발표와 레포트만으로 평가받는다. 아무래

도 학기 초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외국인과 함께 팀이 된다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5) Global Leadership (In Europaplatz) (2,5ects)

Principles International Management와 비슷한 intensive course 중 하나다. 2,5ects짜리 수업이다. 3월 말에 총 이틀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당연히 4시간 이상씩) 팀 프로젝트를 내준다. 팀 프로젝트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오로지 프레젠테이션만으로 평가받는다.(보고서X) 프레젠테이션은 5월 초에 있다. 한 달 동안 넉넉하게 준비하면 된다. 단, 프레젠테이션이 인당 10분 정도는 해야 하는 분량이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는 동안 영어실력 많이 는다.

(6) Business Ethics (In Sontheim Campus) (2.5ects)

2.5ects짜리 수업이다. 우리학교에서 '직업과 윤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 수업이다. 원래 이전까지 엄청난 꿀 수업이었어서 수강을 결심했는데, 내가 들었을 때 교수님이 바뀌면서 더 이상 그다지 편한 수업은 아니게 됐다. 나는 직업과 윤리를 인정받기 위해 그렇더라도 수강했다. 평가는 학기말 팀 프로젝트인 프레젠테이션(70%)과 개인 레포트(30%)로 평가됐다. 수업 중 압박이 만만치 않다. 소규모 수업으로, 교수님이 학생들과 대화하는 식의 수업이라 언제 질문이 날아올지 모른다. 항상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답 못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교수님이 한국 교환학생 체결 학교를 모두 방문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 한국 친구들한테도 관심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과 레포트를 준비하며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고, 수업 중 질문에 답해도 교수님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영어발음연습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수업이었다.

(7) Marketing (In Europaplatz) (2.5ects)

2.5ects짜리 수업이다. 100명 이상이 수강하는 큰 수업이다. 마케팅의 전반에 대해서 배운다. 학생이 너무 많다보니 질의응답보다는 주입식의 한국식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기말시험 난이도도 많이 어렵지는 않다. 마케팅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영역이라서 그나마 알아들을 만하고, 못 알아들어도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일단 기숙사는 세 종류가 있다. 막스플랑크 27, 31 그리고 케네디가 그것이다. 가격과 시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결정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들어가면 된다. 가격은 각각 한 달에 270유로, 230유로, 200유로 정도 한다. 막스플랑크는 학교에서(Sontheim Campus기준) 걸어서 5분 거리, 케네디는 10분 거리에 있다. 나는 막스플랑크 31에 살았다. 기숙사는 전체적으로 우리학교보다 낫다고 본다. 나는 4인실에 살았는데, 안에 방이 4개고 욕실 겸 화장실이 2개, 부엌이 하나 있었다. 방 안에서는 혼자 생활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2인실은 몰라도 4인실은 혼성으로 룸메이트가 배정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독일인 여학생 둘, 베트남인 남학생 한 명과 살았다.) 서로 약속을 정하고 배려하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기숙사 외에 방을 따로 구해서 지내는 것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나, 위치가 좋고 방이 좋으면 400유로까지 하는 데를 봤고, 학교에서 멀고 보통 정도의 방은 300유로 정도 하는 것도 봤다. 위치가 아주 안 좋으면 250유로 정도까지 하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 기숙사보다 비싸다.

전체 경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말하기가 어렵다. 중요한 것은 쇼핑과 여행을 얼마나 하느냐이다. 나의 경우는 쇼핑은 집 갈 때 지인들 기념품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여행도 나는 독일 포함 주변국가 6개국 정도만 돌았다. 나는 독일에 있는 동안 약 900만원으로 생활했다.(왕복비행기 값 포함, 우리학교 등록금 제외) 여행을 비교적 덜 하고 쇼핑을 하지 않으니 적은 돈으로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대부분 한국 친구들 여행 많이 하고, 쇼핑도 많이 해서 900만원보다 훨씬 더 쓰는 게 보통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여행 10개국 하고 쇼핑 많이 해서 1200만원정도 썼다고 들은 것 같다. 식비에 대해서는, 독일은 식료품 포함 물가가 엄청 싸다. 대신 인건비가 비싸서 식당에 가면 비싸니,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식비에서 많이 아낄 수 있다. 만들어 먹으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도 부담 없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학교에서 학기 초 하일브론 근처 관광도시인 하이델베르크와 슈투트가르트에 데려가 준다. 5유로 정도 받았던 거 같은데, 이 돈으로 저 도시들에 가는 건 말이 안 되니 거의 그냥 데리고 가 주는 거라 봐도 된다. 가서도 그냥 풀어 놓는 게 아니라 가이드도 붙여주고, 벤츠 박물관도 입장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물론 자유시간도 준다. 이 때 용기를 내서 한국인이랑 어울리지 않고 외국친구들과 다니면, 그 뒤로도 계속 어울리기 쉽다. 당연히 학기 초에 교환학생들에게 하일브론 생활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해준다. 그리고 웰컴파티 같은 것을 하는데, 학교에서 짜 놓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식당에 가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외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면 된다. 크게 도움 청할 일은 없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개인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활동한 사례를 들은 적은 있다. 하일브론 대학 내에도 우리학교처럼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적극적이라면 시도해볼 만한 것 같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서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인종차별, 치안에 대해서>

주변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서 놀랐던 게 있었는데, 바로 인종차별이다. 나는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를 다녀왔는데 모두 어느 정도의 인종차별은 있다. 인종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다. 다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니하오' 정도는 그냥 넘기라는 거다. '니하오'는 심지어 하일브론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인종차별이다. 그정도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니 그 정도는 가볍게 넘겨주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니하오' 하는 애들이 있으면 한국말로 대답해주곤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종차별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영어로라도 기분 나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힘드니 영어로라도 표현을 하면 대부분 멈추고 어디서 왔냐 등등 대화를 시도한다. 그걸 못하면 인종차별이 계속되는 것 같다.

그래도 인종차별에 대해선 독일이 가장 신사적이라고 느낀다. 독일에서 인종 차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이다. 독일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훨씬 덜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대학교 내에 있을 때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치안에 대해서는, 유럽의 밤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처음 프랑크푸르트로 In 했을 때, 역 근처에서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할 뻔했던 걸 가까스로 찾았다. 특히 여행을 할 때는, 밤에 돌아다니는 것과 소매치기는 정말 신경 써서 조심해야할 것 같다. 하일브론은 어두워지면 길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할 정도로 조용한 동네지만,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정말 밤길도 마음대로 쏘다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학우 혼자 다니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겁먹을 것까지는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겪지 않는데 운이 안 좋은 몇몇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나도 교환학생생활 6개월 동안 인종차별 당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겪은 것은 '니하오'정도밖에 없다.

<내가 느낀 점, Tip>

=>먼저, 출국하기 전까지 최대한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가라고 말하고 싶다. 교환학생 가면 당연히 영어 늘고 외국인 친구들 사귀고 즐겁기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마냥 환상만 갖고 가기보다는, 실제 생활이 어떤지를 알고, 본인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준비할 게 있다면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교환학생 가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무엇을 얻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의 기본바탕이 영어다. 방학 때 꼭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기 직전 방학 동안에 반드시 영어공부를 할 것을 강하게 권하고 싶다.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 하루 전날까지 빠듯한 일정을 보내고 가서, 영어를 아예 못 보고 갔다. 그래서 학기 초 친구를 사귀거나, 수업을 따라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부를 하고 갔으면 영어가 훨씬 빨리 늘었을 것 같다. 토익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발음연습과 함께 작문능력, 또 거기서 배우는 어휘 등을 익히면 효율적일 것 같다.

=>놀면서, 학교 수업 따라가면서 따로 영어공부를 시간 내서 하려니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 맞는 한국친구들과 영어단어, 회화 스터디를 했다.(영어회화 책은 내가, 단어책은 다른 친구가 한국에서 들고 왔다.) 월~목 회화책과 단어 분량을 정해서 시험을 치는 식이었다. 물론, 벌금도 있었다. 스터디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더했다. 이렇게 2개월 정도 하다 보니 말이 조금씩 되고, 들리고, 수업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처음에 외국인 친구를 많이 못 사귀어도, 중간에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 나는 독일생활 초반 2개월 때는 대부분 시간을 한국 친구들하고 보냈는데, 그 뒤로는 거의 반반 정도 보낸 것 같다. 영어가 조금씩 늘고, 기본적인 대화가 되는 수준만 돼도 친구에게 소개 받거나 홈 파티에 참여하는 등등 친구 사귈 곳은 많다.

=>여행에 대해서, 무조건 교통편과 숙소는 무조건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 나는 항상 귀찮아서 미루다가 비싸게 다녀왔는데, 부지런하면 정말 돈 아낄 수 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 가기 전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와 가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를 저울질해보며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러다 고민 끝에 다녀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안 갔다 왔으면 큰 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 꼭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또 가장 행복한 시간들 중 하나였다. 누군가 교환학생 가기를 망설인다면, 가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